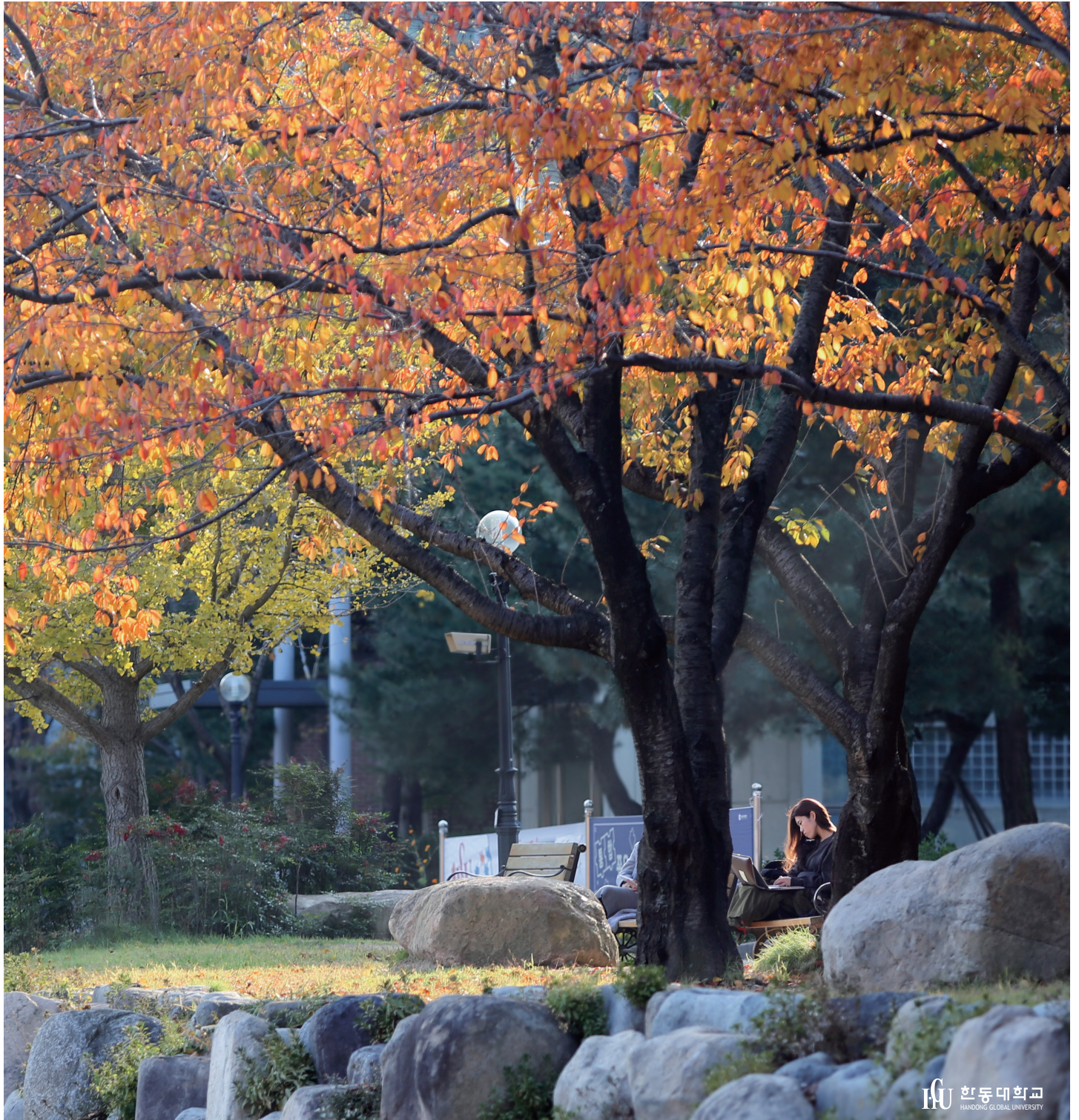






한동인 Magazine

Vol. 7

Handong IN은 한동 안에서의 많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In'과
한동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간다는 '人'의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한동인 Magazine은 연2회 발행되며 한동인 Newsletter는 학기 중 매월 발행됩니다.

발행처 (학)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기획 김은영(후원팀), 김신균(대외협력팀)

글 김은영, 김신균, 학생기자(김노현,조희락,정민교,박규언,한지혜)

사진 이완, 학생기자(정광준,이호연,김노현,박규언)

디자인 권애경디자인연구소



CONTENTS

Special Theme	한동순교 20주년 기념대회	2	갈대상자	나도 너를 믿는다	32
				우리는 한동인입니다.	34
People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제 6대 이재훈 이사장	8		그들을 위한 고민	36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이지선 교수	10		뜨개질 할머니가 110명의 선교사를 만난 날	38
	동네빵집 한성욱 동문	12		선교사 자녀들의 응원단	39
Focus	글로벌한국학 전공	14	동문소식	한동대학교 동문의 날, "어쩌다 동문"	40
	하용조관 및 복지동 완공	16		임재환 동문과 아노키 기도업	42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 기공식	18		한동툰	43
	여호수아 장학금	20			
	한동만나	24		후원안내	45
Inside	교환학생 프로그램	26			
	장기려 RC	28			
	아트스쿨	30			

Special Theme
한동순교리주년
기념대회

요한복음
12장 24절

지난 5월 7일 저녁 7시, 효암채플에서 한동순교 20주년기념대회가 “밀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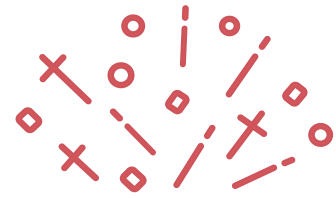
봄학기 학교 축제를 대신해 교목실에서 선교 축제로 주최한 이번 한동순교 20주년 기념대회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복음으로 화해하자, 복음 안에서 살아보자”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순교대회 기획팀인 ‘밀알팀’과 제22대 총학생회 ‘기대’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순교대회는 한동대故 강경식(생명식품공학 95),故 권영민(경영경제 95) 학생이 1997년 피지에서 순교한 지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됐다. 또한 두 학생의 순교 이후, 아프가니스탄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故 최숙희 국제어문학부 교수, 이스라엘에서 소천한故 박소연(상담심리사회복지 08) 학생, 시리아에서 소천한故 김유미(국제어문 01) 동문등 총 5명의 순교자를 함께 추모했다. 순교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밀알팀’ 노동준(국제어문 11) 디렉터는 “이번 순교대회는 10년 전 선배들이 열었던 한동순교 10주년기념대회를 계승했다. 이번 순교대회를 통해 한동 구성원들이 단순히 순교자들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순교대회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6일 동안 진행된 순교대회는 매일 새벽기도, 중심기도회와 함께 ▲개회 예배 ▲저녁 세션 ▲Mission 부스 ▲Memorial Day 전시회 ▲그리스도의 스케치북 ▲Upon this Rock ▲연합 채플 ▲미션 TED ▲J-US(제이어스) 콘서트 ▲Devotion Night(폐회 예배)의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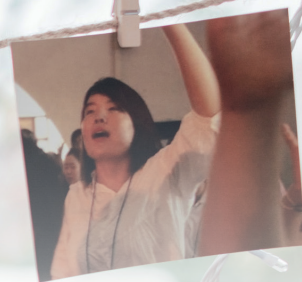
한편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힘써 지키고자,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주누가 선교사(GO 선교회), 서종현 선교사(주청프로젝트 선교회, 비행청소년 래퍼), 나도움 목사(스쿨처치), 김상철 감독(파이오니아 21연구소) 등의 강사진도 참여하여 자리를 더 뜻깊게 만들었다.

김영길 명예총장은 축전 영상을 통해 “1997년 두 학생의 순교소식을 듣고 피지로 출발했을 때가 기억난다. 강경식, 권영민 학생의 순교는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다”고 당시 순간을 회상했다. 이어 그는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다. 하나님 대학의 사명은 죽도록,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며 학교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대학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①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된 한동의 순교자, 그들의 이야기

강경식(생물식품 95)
권영민(경영경제 95)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개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방학때마다 꾸준히 선교를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2015년 한동대학교는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동인의 “순교”를 재정의 했다. 한동의 구성원이 선교 목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사역 중 사고, 병, 핍박자의 가해로 인한 죽음을 순교로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순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7년 한동순교 2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한동의 첫 순교자였던 강경식, 권영민 학생을 비롯해 최숙희 교수, 김유미 동문, 박소연 학생을 기억하며, 그들이 걸어간 천로역정의 길을 따라가 보았다.

1976년 7월 19일, 부산에서 태어난 강경식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기 좋아하며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였다. 그는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항상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1975년 7월 3일, 포항에서 태어난 권영민 학생은 온유하며 공부를 베푸는 사람이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그림을 매우 잘 그렸다. 한동대학교의 워십 댄스 동아리 MIC(Motion In Christ)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강경식, 권영민 학생은 1997년 여름 HTDS(현 HDS, 한동제자훈련학교)를 통해 1997년 7월 5일, 10명의 HDTS 팀원들, 김영섭 교수와 피지의 비전 칼리지(전문기술학교)로 단기선교를 갔다. 그곳에 들고 간 컴퓨터 10대로 원주민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피지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던 7월 10일, 두 학생은 식수시설 개선을 위해 우물 만들기에 동참한 후, 몸에 묻은 모래를 씻어내기 위해 비전 칼리지 앞바다 방파제로 갔다가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려 소천했다. 이후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카바낭아사우 알라바 학교에서는 7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밟던 연못에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다.



김유미 동문(국제어문 01)

1983년 2월 9일 문경에서 출생한 김유미 동문은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슬람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길 원했지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2011년 시리아로 파송 받아 선교활동을 하며 그곳에서 아랍어를 배우며 현지인들을 만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시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면서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이사가 19장 23-25절 말씀을 통해 이집트로 인도함을 받았고 이집트에서도 열정적이고 침착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사역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서 수술 받던 중 소천했다.



박소연 학생(상담심리사회복지 08)

1989년 3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난 박소연 학생은 생후 6개월에 뇌에 이상이 생겨 당시 의학으로는 완치할 수 없으며 평생 지적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그녀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재학시절 이스라엘 중보기도 동아리 '오르'와 '향기내는 사람들'에서 활동했으며, 방학 때 오르 동역자들과 함께 두 번의 이스라엘 비전트립에 참가했다. 두 번째 비전트립은 약 50일간 진행되었는데, 박소연 학생은 현지 키부츠 농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봉사활동 마지막 날, 이동 중에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소천했다. 박소연 학생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농장 주인은 그녀와 그녀가 믿었던 예수를 기억하며 매년 추모예배를 드린다. 그녀가 순교한 곳에는 나무가 심어져 그곳을 방문한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최숙희 교수(국제어문)

최숙희 교수는 1960년 8월 5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동대 국제어문학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했다. 최 교수는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내어 주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묵묵히 일했으며, 1997년 중국 단기선교를 갔다가 그 즈음 강경식, 권영민 학생의 순교에 영향을 받아 선교에 헌신하고자 마음먹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동대 교수직을 사직하고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나갔다. 2년 동안 그곳에서 교수로 섬기다 2002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GBT에서 성경번역 교수로 헌신했다. 그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던 중 2007년에 육종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8년 12월 22일 소천했다. 국제어문학부에서의 섬김과 해외사역, 그리고 그의 삶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남아있다. (㉞)



증인으로 살아내기

김완진 목사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선교와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지키며 박해 중 순교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국제 오픈도어선교회의 발표에 따르면 매달 320여명의 그리스도인들이 60개국 이상에서 박해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으며, 북한은 15년 연속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지금도 노동 교화소에는 약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억류되어 있다고 한다.

1세기 기독교가 로마제국으로 전해지면서 나타난 특별하고도 특이한 현상은 순교의 사건이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초대교회의 스테반 집사, 야고보 사도, 그리고 베히새 교회의 안디바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올부짓는 순교자의 통곡(계 6:9-10)이 울려 퍼진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고백한 초대교회 신학자 터툴리안은 교회의 정체성을 순교에서 찾았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섬 전도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일사각오의 정신을 남긴 주기철 목사의 삶과 죽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필자 같은 젊은 목회자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순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가족에게는 물론이요, 공동체에게 크나큰 아픔이 된다. 개신교 내에서는 순교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대사회에서 순교의 정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적 죽음으로 인한 ‘적색 순교’(피흘림의 순교)에서 신앙고백적 삶을 통한 ‘백색 순교’(피흘림이 없는 순교)로까지 개념이 넓어져야 한다.

지난 22년 한동 공동체의 역사는 선교적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자료

와 기억을 더듬어 볼 때 한동인의 첫 선교 활동은 1996년 1월 약 45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스라엘 선교활동이었다. 같은 해 여름 7월에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연합한 ‘연동사회봉사단’이 조직되어 중국 현지 초등학교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선교활동이 이어졌다. 방학마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으로 복음을 들고 뛰어나갔다. 지역 연구(field research)와 연결된 기독교 대학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동만의 특별한 선교활동으로도 이어졌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교수와 학생이, 학생과 학생이 한 몸을 이루고 복음으로 서로 연합했다.

신약성경에서 ‘증인’(mártys)이란 단어는 순교자와 동의어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죽기까지 증언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뿐 아니라 한동인 역시 ‘선교적 삶’이라는 묵직한 명예를 매어야 한다. ‘모인 교회’에서의 삶을 넘어서 각자의 삶의 지경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며, 부르신 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명제가 삶의 진정성이 담보된 고백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지난 5월故 강경식,故 권영민 동문의 순교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한동선교축제는 2008년故 최숙희 교수, 2010년故 박소연 동문, 2012년故 김유미 동문의 죽음과 이들이 남긴 선교적 삶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동 공동체에게 삶의 진정성이 담보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를 요청하는 시간이었다. 한동의 많은 학생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직 희망이 있다. (한)

밀알의 믿음 신실한 예배

김진실 (콘텐츠융합디자인 15)

설렘을 가지고 한동대에 첫 발을 내딛은 올해는 ‘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저는 편입을 준비하며 읽었던 『갈대상자』 속 한동대학교의 첫 열매였던 선배님들을 기억하며, 어떤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지 고민하던 차에 ‘밀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데코레이션 팀’에 지원하였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자, 가장 먼저 올라온 공지는 “예배로 모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올 수 없었던 한동대학교이지만 편입 후 맞이한 첫 학기는 학업과 대인관계 속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했고, 하나님께 소홀하며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해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함께 섬기게 된 학우들과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대회를 맞이하는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라는 한 존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만, 내가 썩어져야만 밀알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 알았던 나의 좁은 시각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몇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동시에 한동대학교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온 열방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말과 글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며 나아가는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열심히 노력해서 밀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 의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며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분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 혹은 이웃만 사랑해 보려는 저의 불완전함에서 눈을 들어, 먼저 신실하시고 실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H)



한동대와 한국교회 사이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제6대 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Q.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현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CGN TV(글로벌 선교교육방송), 온누리 선교재단·복지재단과 몇군데 사립학교 이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Q. 이사장이 되신 소감은? 이사장으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할 때 떨리고 힘들었는데 그 이하는 아닌 것 같아요. 목회와 또 다른 차원인 교육기관을 맡게 된 것이 사실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재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또 하나님 대학으로서 온전히 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교회와의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한국 교회들의 지원과 기도 없이는 기독교 대학의 미래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한국 교회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Q. 한동대학교에서 이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대학으로서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영적인 방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번째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나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요약하면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역할은 이 두 가지를 지키도록 학내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것과 더불어 학교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하나됨을 말씀하셨는데 한동 구성원들이 하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된다’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첫번째 조건이라 생각해요.

M. 스캇 펙(Mogan Scott Peck)이라는 정신의학자가 <The Different Drum(평화의 북소리)>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 내용은 “공동체가 서로 다른 북을 치지만 어떻게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참된 자유민주주의는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목소리가 충돌과 대립이 아니라 화음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인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Q. 한동대학교의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의 변혁 주체로서 역할인데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이니까 기독교 대학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이원론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학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함과 하나됨.

이사장의 역할은 이 두 가지를 지키도록

학내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것과 더불어

학교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핵심 가치를 ‘덧’,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많은 도전과 변화를 ‘뒀’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동대의 덧과 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총체적인 진리라는 확신이 덧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뒀이라는 건 “시대마다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창의적인 마인드,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 변혁이 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이주자 문제, 탈북 문제, 통일 문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동성애 문제 등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인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뒀이 아닐까요.

Q. 한동대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기 원하시나요?

한동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대표 단체와 먼저 소통을 해야겠죠. 일년에 몇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건의하고 싶은 말, 때로는 반대되는 생각이라도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소통이라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니깐 한 가족으로 그때 그때 풀어가면 되죠.

Q. 한동대 재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입시중심이라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잘 안 주잖아요. 어떻게 보

면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대에서의 삶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과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도 좀 폭 넓게 읽고, 성경도 스스로 읽어보고 충분한 영성과 인문학적 지식을 쌓으면 창업이나 진로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고 봐요. 단순히 기술인, 기능인이 되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철학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Q. 한동대 졸업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한동대학교를 기억하고 학부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거짓된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방법이 후배들을 위해 후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Q. 한동대 교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학교를 잘 지키셨고, 열심히 일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하지만 법인 이사회와 마음을 같이 해서 대화하고 힘을 합치는 교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의 기도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한동대학교가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이지선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모두 나보고 인생이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에서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지선 교수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로 한동대 교수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부임 전부터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2000년 7월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사고로 전신의 5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30여 차례가 넘는 수술과 재활 치료 끝에 인생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끝에 빛되신 하나님을 만났다.

“아 내 인생은 이제 뻥하구나. 이런 얼굴로, 장애인으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숨어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발견한 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몸이 좀 회복되고 나서 제가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만 키우고 있을 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셨어요. 아마 장학금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품었을 때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학부 때 유아교육을 전공했었는데요, 사고 이후로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때 세상에 참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았고, 그런 과정 중에 누군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내밀어 주는 손들이 참 많았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게 2004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처음에는 재활상담을 공부했고 좀 더 폭넓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하던 중 거시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생겨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마치고 2017년 3월부터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되었다. 학기 초 인터뷰 당시 그녀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첫 강의 때 학생들에게 저는 처음이고, 그래서 배우는 교수로 여러분 앞에서 있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요.”라고 전한 바 있다. 한 학기가 끝나가는 즈음 이지선 교수님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Q.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 소감은?

처음에는 진짜 매 수업 시간마다 너무 당황했고, 수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도 너무나 부신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안했는데 학생들이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Q. 어떤 점에서 당황스러웠나요?

1시간 15분이라는 수업 시간 관리가 어려웠고, 학생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또 팀 편성부터 자잘한 부분까지 경험이 없으니까 칠십 여명 앞에서 딱 이 끌어야 했는데 혼동이 많았죠.

Q 수업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강의를 시작한지 두 달 조금 지나서 스승의 날이었는데 조교가 꽃을 가지고 들어와서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노래를 끊었어요. 사실 지금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너무 민망해요. 그리고 그날 다른 교수님 연구실 문을 구경하면서 제 연구실로 돌아오는 데 저는 팀을 안 맡고 있으니까 전혀 기대없이 왔어요. 제가 정책학회라는 학회를 맡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직 만난 적도 없었는데, 학생들이 제 연구실 문을 꾸며줬어요. 사실은 나만 안 받았을 거라 생각해서 이 학생들이 해 준거잖아요. “아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한동대 한동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Q 수업할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정책론 수업에는 72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앞자리에 앉는 학생들이 질문을 참 잘하고, 나를 더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대학교 때 이렇게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일학년 때는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학생이었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수업 중에 교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늘 수동적으로 받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학생들 보면 도전이 되고 미래가 기대돼요.

Q 다음 학기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길 기대하시나요?

조심스럽지만,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가 조금 더 줄어 들었으면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덜 미안하고 덜 부끄러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교수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유아인지이론 중에 비고스키가 비계 설정에 대해 이야기 했어요. 층을 올리고 그 다음 것을 만들기 위해 설정해주는 것들, 그걸 건축용어로 비계라고 하더라고요. 유아인지에서도 비계를 설정해주면 유아 스스로 발전하고, 또 다음 비계를 만들어주게 돼요. 유아들도 그렇지만 대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전체 디자인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고, 넓고 크게 볼 수 있어야 다음 비계를 설정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역량이 부족하지만 학생들의 비계를, 그 다음 층을 설정해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웃음)



음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픈 ‘동네빵집’ 한성욱 동문



싱어송라이터 듀오 ‘동네빵집’은 갓 구워낸 빵처럼 신선하고 따뜻한 노래를 한다. ‘동네빵집’의 한성욱 동문(국제어문학부 03)은 한국 컴패션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동시에 일상 속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음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주변 친구들이 많이 걱정하는 학생이었어요. 4학년 때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많이 듣곤 했어요. 한창 스펙을 쌓아야 할 때 유재하 음악대회에 나가고 버클리 음대 오디션을 보고 그랬거든요. 또 한국문학에 심취해서 문학책을 매일같이 읽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을 어떤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으로 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겐 자신과 자아실현이 훨씬 중요했어요.

Q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는 일을 하셨네요

예전에 국제 구호를 하는 팀엔팀(Team and Team)이라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유재하 음악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버클리 음대에 합격을 한 뒤, 이것이 “음악의 길로 가는 과정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엔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난 예수님, 그분이 가신 그 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길을 청년의 때에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한동대 선배가 “이 일을 잠깐이라도 해보고 가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런 말을 했던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Q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음악을 많이 들으셨어요. LP판으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서 음악은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싶었고 작곡과를 가고 싶었지만 학비가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음악을 교회 형, 누나들에게 배웠습니다. 한참 음악에 빠진 중학교 2학년 때는 기타를 밤새 쳤어요. 청소년 시기가 감수성이 정말 예민하고 몰입도가 가장 높은 시기였기에 심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Q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하게 된 때와 그 계기는?

유재하 음악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친한 형과 팀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얘기를 서로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의 ‘동네빵집’이 되었습니다. 형은 피아노, 저는 기타를 연주하고 둘 다 곡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니깐 함께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팀을 결성했죠. 2013년에 첫 싱글앨범이 나왔고 2014년에 첫 정규앨범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싱글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Q 동네빵집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삶의 변화는?

음악을 시작한 후 그냥 행복해요. 뭔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음악을 하고 밴드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기는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Q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저희의 첫 데뷔 곡이 '버스'라는 곡인데요, 그 곡을 만들 때 자본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악을 좋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발표했던 곡이 바로 '버스'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오늘 내가 두 발을 땅에 딛고 다시 꿈을 꾸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마치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서 굉장히 아끼는 곡입니다.

Q 작곡할 때 영감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한번은 아빠랑 딸이 길에서 만났는데 서로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딱" 하고 한 장면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감을 많이 받아요. 좋은 글이나 시를 읽을 때도 영감을 많이 받고 좋은 음악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Q 한성욱에게 음악이란?

저는 좋은 음악을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음악을 한다는 것은 훌륭한 미술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좋은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음악을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취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기다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 인생이 뭐랄까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다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후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Focus 1

한국학의 세계화, 그 시작 글로벌한국학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이 2017년 1학기 창의융합교육원(인문사회계열) 내에 신설됐다.

글로벌한국학 전공은 한동대의 국제화 전략의 하나로,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역량과 다학제 융합적 역량을 갖춘 내국인 및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문간 '화학적 결합'에 기초한 융합 학문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학제간 융합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및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융합교육을 실시한다.

내국인 학생에게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거나 각종 해외 관련 사업에 진출하여 활동하는데 필요한 한국학 지식을 제공하고, 외국인 학생에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 기간에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의 성공 요소와 한국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교육하여 이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과 자국간의 상호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글로벌한국학 전공 내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 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학과 한국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세계화하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글로벌한국학 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김종록 교수(글로벌리더십학부)는 “세계화 시대에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볼 때,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동대로 유학을 것으로 생각 된다”며, “한 강의실에서 한국학을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해 한국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꿔 나가는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㉞





Q. 글로벌한국학 전공이 신설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모두 선택 가능한 한국학 전공 과정을 통해, 내국인 학생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 취업과 각종 해외 관련 사업 진출에 필요한 한국학 지식 습득 및 이를 통한 한국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며, 외국인 학생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 기간에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의 성공 요소에 대해 배움으로써 자국에 돌아가 자국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자국의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게 하고자 한다.

Q. 전공 이수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일반 한국학 과정과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Q. 글로벌 한국학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외국인 학생은 제1전공(33학점)과 제2전공, 부전공 모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 학생은 내국인 학생은 제2전공 또는 부전공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 심화, 전자공학 심화, 생명과학을 제외한 우리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전공과 연계전공 및 부전공(21학점)이 가능하다. 단 2015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글로벌한국학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Q. 일반 한국학 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일반 한국학 과정에서는 한국의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등에 대하여 융복합적 관점에서 한국학에 대해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한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Q.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서는 내국인 혹은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에 대해 배운다. 이 과

정을 이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국내 혹은 국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기본 과정으로서의 21학점(부전공)을 취득하면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심화 과정으로서의 45학점(전공) 이상을 취득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학생은 위의 과정 외에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6급을 취득해야 한다.

Q. 내국인 학생의 직업 전망과 진로는 어떠한가?

글로벌한국학을 연계하여 복수로 이수하면, 내국인 학생은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 국내 기업, 외국 기업, 국내외 NGO, 선교단체 등에서 한국학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한국학에 대한 연구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한국학 분야의 전문 연구원 및 교수, 국내 공사립학교의 내국인 대상 국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韓流)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세계 각처에서 한국어 교사와 한국 문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Q. 외국인 학생의 직업 전망과 진로는 어떠한가?

외국인 학생은 제1전공 혹은 제2전공으로 IT-한국학, GM-한국학, UIL-한국학 등과 같이 한국학을 연계하여 복수로 이수하면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한국학을 기본으로 하는 발전된 형태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윤정우(법학부 16)



Q. 글로벌한국학을 2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맞춤형교육이 절실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부모교육, 노인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살았던 지역의 장애인학교, 다문화센터에서의 경험과 대학 입학후 초록씨앗 봉사단에서의 노인봉사를 통해 어디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과 사회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배울 수 있고,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한국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글로벌한국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비전은 무엇인가요?

글로벌 한국학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며, 이 시대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법률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

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통해 한글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 친구들,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없어 한글을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Q. 전공선택에 있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선교를 가는 친구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학을 함께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글로벌한국학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Focu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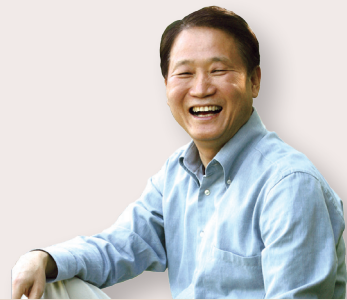
한동의 새로운 보금자리, 하용조관 및 복지동 완공

지난 2월 27일, 행복기숙사 1층 로비에서 하용조관 준공 예배 및 헌명식이 열렸다.

행복기숙사는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공사 기간 총 1년 6개월여 만에 완공되었다. 한동대에 건립된 10번째 생활관인 행복기숙사는 온누리교회 창립자이자 1994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한동대 이사장 및 이사로서 한국교회와 한동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故 하용조 목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하용조관’이라 명명했다. 이날 열린 준공 예배 및 헌명식은故 하용조 목사의 사모인 이형기 권사와 그의 가족·친지들, 장순홍 총장, 김영길 명예총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성도들,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장순홍 총장은 “지난 22년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큰 고난과 역경 속에 처했던 지난날을 돌아볼 때 하용조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용조 목사님은 1994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우리 대학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섬기면서 약 192억원에 달하는 후원 사역을 감당했으며, 개교 전 재단 기업의 사고로 개교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개교 인가를 위해 필요한 예치금의 부족분을 후원해 주신 것으로부터 재정적 위기와 핍박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큰 도움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순홍 총장은 “하용조관을 통해 우리 한동인들이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먼저 베풀며, 하용조 목사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한동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하용조 목사 어록

-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 복음은 기득권을 거부합니다. 복음은 안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복음은 개혁정신을 갖습니다.
- “주님, 당신의 발 앞에 앉는 것은 이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낮습니다. 그곳이 하늘나라의 보좌입니다.”
- 막힌 길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히면 다른 곳을 보십시오. 다른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순결입니다. 정직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때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들이 일어난다.



또한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는 설교에서 “하용조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수한 소명과 힘든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였다”라며 “한동대에서 자라나는 귀한 학생들이 또 다른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하용조관은 총사업비 138여억 원이 투입되어 건축 전체면적 8,464m²,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로 총 136실에 538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은 장애인실(1인실) 2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4인실 기준이며 세미나실, 보건실, 기도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특별히 내부에는故 하용조 목사를 소개하는 기념 동판과 생전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 집필한 성경 및 기독교 서적을 비치한 작은 기념도서관이 만들어졌다. 또한 하용조관과 연결되어 건립된 복지동은 총사업비 39억여 원이 투입되어 건축 전체면적 2,358m²,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졌으며 보아스메디컬(병원), 식당, 편의점등 학생 편의시설이 입주했다. ㉞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 기공식 열어

지난 7월 11일 한동대학교와 유엔아카데미임팩트(이하 UNAI) 한국협의회 주최로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Ban Ki-moon Global Education Institute in Support of UNAI, 이하 GEI)’ 기공식이 한동대 올네이션스홀 오디토리움 등에서 열렸다.

이번 기공식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장순홍 한동대 총장, 이재훈 한동대 이사장, 김영길 UNAI 한국협의회 회장, 유엔 산하 주한 공관장 및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UNAI 글로벌 허브 대학 총장 및 UNAI 가입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장순홍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대와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와의 더욱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설립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한동대가 이번에 GEI를 설립함으로써 전인적인 세계시민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융합 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전문가를 배출하고, 여기서 교육을 받은 한국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거 진출하며, GEI가 한국에서 국제기구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리더를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길 UNAI 한국협의회 회장은 “지식전달만 하는 교육을 넘어서서 지식을 배워서 나눠주고, 전 세계에 행동으로 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이재훈 한동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동대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같이 힘을 합하여 섬길 기회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한동대는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다. 한동대뿐만 아니라



UNAI에 속한 많은 대학과 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함께 섬기면서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GEI는 세계시민교육 전문 실행 기구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유엔 SDGs) 달성과 이를 위한 유엔 SDGs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담당한다. 한동대와 UNAI 한국협의회는 축적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68개 포함 전 세계 1,200여 개 UNAI 회원 대학·관련 기관들과 공동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유엔 SDGs의 포괄적 연구 및 교육, 유엔 SDGs 전문가 양성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GEI는 고등학생·대학생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학생단체 UNAI ASPIRE(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와의 교육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이행 증진 및 확대에 이바지하게 된다.

GEI는 현재 무밭이 있는 부지에 2개 동·3층, 총 면적 약 1,040평(3,441m²) 규모로 설립하며 내년 10월에 완공예정이다. GEI는 한동 그레이스 스쿨(Handong GRACE School)과 반기문 지속가능발전국제연구센터(Ban Ki-moon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이하 BKM SDIRC)로 나뉜다. 한동 그레이스 스쿨은 한동대의 공(工)자형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이다. 한동 그레이스 스쿨은 토론 및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한동 오픈 디지털 라이브러리(Handong Open Digital Library), 국제콘퍼런

스홀(200명 수용 가능), 카페테리아로 구성한다. 또한 반기문 지속가능발전 국제연구센터(BKM SDIRC)는 유엔 SDGs의 포괄적인 연구와 개발도상국 지원, 유엔 SDGs 관련 지도자와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공간을 목표로한다. BKM SDIRC는 연구실, 강의실, 세미나실과 더불어 유엔 교육 역사 및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관련 업적을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는 UN갤러리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④

UNAI(유엔아카데미임팩트,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지난 2001년 UN이 수립한 새천년개발계획(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8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들이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기문 (전)유엔 사무총장이 2008년 제안해 2010년 정식 출범한 UN 산하의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UN이 교육을 통하여 빈곤, 인권 신장, 문맹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분장 해소 등을 논의·해결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 대학들과 손을 잡은 것이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유엔 SDGs)

2015년 유엔이 2030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아젠다 2030'으로 채택한 의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Leave No One Behind)'을 위한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등 17개 목표를 포함한다.

여호수아 장학금

목회자·선교사 자녀 110명에게 총 1억 5백여만원 지급

2017년 4월 5일 교내 효암 채플 별관에서 여호수아 장학금 오리엔테이션 및 수여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장순홍 한동대 총장과 여호수아 장학금을 받은 한동대 재학생 110여 명이 참석했다. 여호수아 장학금은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들을 후원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 2016년 1학기에 시작됐다.

장순홍 총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글로벌한 감각과 언어, 예술적인 달란트와 원만한 관계성 등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많은 강점이 있다. 특히,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생각들은,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한동대에서 사랑을 누리고 베풀면서,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훈련받아 오늘날 세상에 팽배한 어둠과 어려움에 맞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늘 하나님의 자녀 됨을 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장학금은 110명의 학생에게 모두 1억 5백여만원이 지급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년 동안 후원을 받는다.

횡수로 2년 재인 여호수아 장학금으로 현재까지 총 312명의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이 선발되어 총 356,992,300원을 지급하였다. 한동대에는 2015년 1학기 기준 목회자 자녀가 524명, 선교사 자녀가 165명 재학 중이다. 휴학생까지 포함하면 목회자·선교사 자녀는 1,000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20-25%에 달한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녀 교육문제이다. 여호수아 장학금 후원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울 수 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섬기는 동역자가 될 더 많은 후원자를 기다린다. (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모님을 보며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새벽마다 교회에 울려 퍼지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후원자께서 물질로 헌신해주시고 기도로 중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 저희를 격려합니다.

한동대 10학번 박한결
1학번 박은결 남매
(PK, 여호수아장학생)



여호수아 장학금

여호수아 생활장학금 1년 120만원(일시, 월정기 10만원 후원가능)
여호수아 등록장학금 1년 600만원(일시, 월정기 50만원 후원가능)
여호수아 일반장학금 1만원 이상(일시, 월정기 후원가능)

후원계좌 및 소개 영상 안내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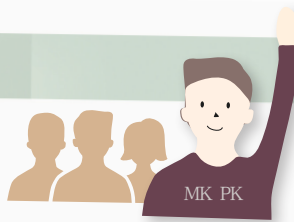
<http://sarang.handong.edu/joshua>

후원관련 문의

한동대 대외협력팀 054-260-1065 sarang@handong.edu

NAVER 여호수아 장학금 ▾





장학생들의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장학생에 선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빨리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저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데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배려와 헌신으로 인해 이번 학기를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저 또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꿈은 국내의 어려운 이웃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취약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밤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에 힘입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을 통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신 후원자님과 후원자님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제 꿈의 시작에 여호수아 장학금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 16학번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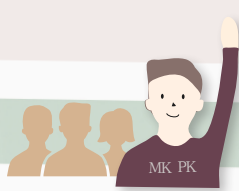
장학금을 받고 처음엔 '내가 과연 이 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난 누구에게 도움을 베풀 적이 있나?' 라는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늘 감사하며 봉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엔 봉사활동에 좀 더 시간을 쏟고, 개인을 생각하기 전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제 마음 속엔 '감사함' 이 당연시 되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도 여호수아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한번 누군가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도움에 부끄럼없이 최선을 다해 학교 생활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든데 이 일을 계속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환경을 보면, 풍족하진 않았지만, 늘 곁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심도, 온전히 학교생활을 하게 해주심도, 여기서 배움을 주시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여호수아 장학금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공동체생활을 할 것이고, 학업에도 물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제가 받은 도움만큼, 베풀며 한동대학교는 물론 제 자신에게도 후회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 16학번 임○○)

어렸을 적 선교의 경험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짧지만 선교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그곳의 환경은 저로 하여금 국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저에게 중요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저의 비전을 삶과 연결시키면서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모님이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 재정적인 환경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필요한 만큼 채워셨고, 이번 여호수아 장학금도 저에게는 필요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리고 그 은혜의 통로로 후원자님도 만나 뵈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에 받게 되는 돈을 생활비로 잘 활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이렇게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늘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님께 제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 드립니다. 부족하고 서투른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 자녀 16학번 신○○)

저는 이번 학기 복학을 하고 전산수업을 듣고 있어요. 코딩프로그램을 배우는 과목인데, 저에게 낯설고 어려운 과목이라 수업 따라가기도, 과제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듣는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 수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생활이 바쁘고 정신없어 시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낍니다. 그런데 제게 학업을 알려주는 선배는 적지 않은 시간을 저를 가르쳐주는데 써요. 사실 저는 제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하기 꺼려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후원자님과 선배처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베풀겠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에 다녀왔어요. 그 곳에서 많은 한인 선교사님, 목사님 가정을 만나 교제하는 기회도 있었습다. 전기도 자주 끌고, 말라리아에 수 없이 걸리시면서 건강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현지 주민들에게 실망하고,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하시는 선교사님께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지 여쭙어 봤어요. 선교사님께서는 “항상 가고 싶지. 한국에 가면 좋은 의료혜택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가족들도 보고 싶고, 우리 아들들은 연락할 때마다 한국에 돌아오라고 한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길 원하셔.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있을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식의 기도를 자주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후원자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진심으로 기뻐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자녀 14학번 진○○)

이번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수령하게 된 점 정말로 후원자님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육남매의 맏이로써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저는 제 자신과 가족의 기대치에 항상 못 미쳤습니다. 항상 혼자 힘으로 아득바득 노력하다 보니 그럴것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실천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저희 삼형제가 다 같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형제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자 하려할 때 금전적인 문제는 언제나 따라왔는데, 이번 장학금 덕분에 저희가 해보고 싶은 꿈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아원 사역이 꿈입니다. 저희 집은 육남매 중에 세 자매가 입양아입니다. 여동생들을 보면서 저는 고아사역에 대한 꿈을 키우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알바로 쓰이던 시간을 공부와 봉사활동에 돌려보는 것이 어떠한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여유 덕분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조금 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쓰면서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고 인간관계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여하는 복의 시발점이라고 믿고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으면 밖으로 돌려주면서 생명을 유지하듯,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다가 썩어 들어갔듯이, 저는 복을 받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자님의 후원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교사 자녀 11학번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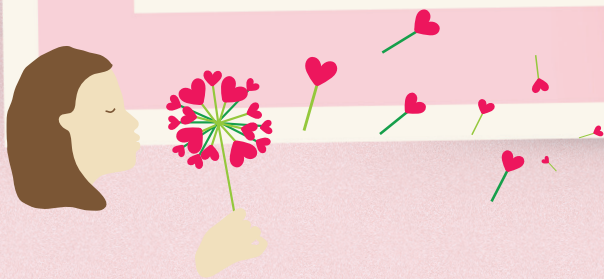
사는 게 제 나이가 되어도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무게는 다르지만 그 때 그 시절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00씨의 올해 소개글을 읽으니 여전히 힘들고, 팍팍한 생활인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젊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축복이니 이 시간들을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도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는데 그 때는 저보다 경제적 환경이 나은 친구들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대학 시절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00씨를 도울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정00후원자

앞으로 하고픈 일이 농아인을 위한 것이라니 이 또한 화평을 이루고자 함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해요. 정말로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감사하게 받아주니 내가 더 많이 고마워요. 나 또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으나 순간 순간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적지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내가 보니 00학생은 아주 많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 같은데요?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실 거 같아요.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할게요. 항상 건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00학생이 되길 소망하며. 윤00후원자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00학생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00학생과 결연이 되어 정말 반가웠어요. 아마 하나님을 통한 한동을 통한 우리의 인연은 00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00학생이 얼마나 대견한지 00학생의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00학생을 그런 감동의 마음으로 바라 보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진로에 대해 전공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일점일획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00학생이 공부하고 경험한 모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쓰실테니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친밀히 함께 해 주시는 통로로 사용될 거구요. 저는 00학생이 정말 기쁘게 한동 생활을 누렸으면 합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을 바라보면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 참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삶의 고비고비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의 아들 딸들을 사랑합니다. 00학생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고민하는 젊은이를 보면 가슴이 벅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한동인들을 배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학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실에서 조금만 눈을 들면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게 사 용할 00학생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힘내세요. 김00후원자



아름다운 한동의 문화로 자리잡은 한동만나

만: 만치 않은 주머니 사정 때문에 끼니 걱정을 해야 했던

나: 에게 만나는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행복이었습니다.

-한동만나를 이용한 학생의 감사메시지-

2017년 1학기 한동만나는 3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6,126끼의 한동만나를 학생들과 나누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를 수 있었던 학생들에게 후원자와 한동대 총동문회, 한동대 총학생회 '기대', 한동대학교회등 다양한 한동 공동체의 사랑으로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할 수 있었다.

한동만나는 한동의 청년들이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한 학부모 후원자의 나눔으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2,503끼를 재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한동만나는 꼭 필요한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 아너코드에 따라 사랑과 배려로 지원하는 따뜻한 후원프로그램이다. 현재 한동만나는 1만원을 후원하면, 약 4끼 정도의 식사를 후원할 수 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끼니를 거르고 있을 한동인들을 위해 한동만나를 후원해 줄 후원자를 기다린다. (HU)



2016.05-2017.06

12,503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만나

한동만나 후원 계좌 및 소개영상 안내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대학교
<http://sarang.handong.edu/manna>

후원 관련 문의
대외협력팀 054-260-1065 sarang@handong.edu

NAVER 한동만나

너를 위해 준비한 나의 따뜻한 위로

가계곤란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한동 만나 덕분에, 부모님께 '밥은 잘 먹고 다녀'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밥 먹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짐도 덜어드리고 적은 돈으로 필요한데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었지만 누구보다 막막했던 그 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한끼로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 만나가 한동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동만나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게 해주신 학생들과 후원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밥 한끼 사먹을 돈까지 없었을 때, 한동만나를 이용해 따뜻한 밥 한끼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학교를 복학하면서 식비 문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도 후원자분들께도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 한동대학교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저 한끼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움의 삶을 보여주는 한동 감사드려요~

주변에서 돈을 아끼겠다고 한동만나를 사용하는 학생은 본 적이 없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동만나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지만 이런 기부문화가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힘든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대외협력팀과, 기부자분, 학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나가는 중 최대한 생활비를 아껴 사용 했지만 간간히 돈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 만나가 있음에 제 마음이 넉넉히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치는 학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만나를 통해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만나게 되는 한동만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 두 번 정도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안될 때 이용했습니다. 한동만나를 항상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저처럼 어려운 친구들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참 감사합니다.

한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은혜 잊지않고, 성공해서 한동만나 후원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자녀입니다. 한동대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장학금과 기호가 있어서 감사하게도 매 학기 풍부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만나가 저에게 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학우들이 한동만나를 더 잘 누렸음 하는 마음에서 계산대 앞에서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만 한동만나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아너코드로 진행되는 이 한동만나는, 후원자님들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따뜻한 마음과 한동대학생들의 아너코드가 깃든 아주 감사하고 특별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사실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배려하고 응원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밥 한끼 한끼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밥 한끼 먹을 돈이 없을 때, 한동만나를 통해서 한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같은 학생 입장이라 많이 후원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후원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푸드포인트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진 상태에서 배는 고프고, 그럴 때 마다 좌절하고 슬퍼하기 보다는 코리안테이블을 찾아 한동만나를 먹을 수 있어서, 배고팠던 하루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자들 덕분에 한동에서 밥 못 먹고 산다는 얘기가 안 떠도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시절 저마다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는 것이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것은 단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과 1:1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자매 대학에 학교 차원에서 재학생을 선발 파견해 상대 학교에서 최소 1학기 이상 수학하는 제도이며, 대학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한동대는 매년 교류협정(MOU) 체결 대학이 늘어나면서 교환학생 파견국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년간 46개교와 추가로 협정을 맺어 현재 총 27개국 79개교에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추가로 유럽의 4개교와 교류협정 체결이 진행 중에 있다(17학년도 1학기 기준). 본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특징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파견을 희망한다면 우선 국제처의 문을 두드려 보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학을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교환 목표와 국가별 특징을 비교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한동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중국 ▲일본 ▲홍콩 ▲인도 ▲몽골 ▲인도네시아에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한편 교환학생 파견국은 대륙별로 크게 북미(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이며, 대륙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학은 한동대와 비슷한 분위기로 대부분 기독교 사립대학이다. 또한 학점 제도가 한동대와 같으며 모든 학부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특별히 영어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에 가장 적격이며 학생들은 주로 캠퍼스내 기술사에 거주하게 된다. 유럽의 대학은 대부분 종교적 색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교환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수기



채가 없는 일반 사립대학으로 가장 큰 장점은 유럽 전역에서 온 다양한 교환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며, 수도에 위치한 대학들이 많아 주변국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다. 특별히 유럽 별도의 수업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학교마다 열리는 전공도 다양하다. 주로 캠퍼스 밖에서 자취를 하거나 외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시아권 대학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독교사립대학에 속한다. 중국과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중국어와 일어를 습득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 아시아 대학들은 해당 대학이 속한 수도나 일반 도시 등 다양한 곳의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어 교류협정으로 인한 장점들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대륙별로 파견 비용도 다르다.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와 같은 동유럽과 아시아권의 경우 본교에 등록금을 내고 현지에서는 본교 한 학기 비용보다 저렴하게 생활이 가능하다. 반면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의 북유럽은 본교에 등록금을 내고 보통 자취를 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에 따라 생활비가 차이가 난다. 미국은 본교에 등록금을 내거나 혹은 본교의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견교에 등록금을 내며, 보통 기숙사 생활을 해 초기에 기숙사비와 식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매년 5월 신규 교류 협력 대학교에 파견할 경우에는 아셈 듀오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이나 이공계장학금 등 본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다면 그대로 파견학기에도 적용되어 현지 생활비만 부담하면 된다. (H)

*국제처 교환프로그램 관련 사이트

공식홈페이지: <https://www.ihandong.info>

 <https://www.facebook.com/handongglobaluniversity>

 <https://www.instagram.com/handongglobaluniversity>

강아름(전산전자공학부 13) | 미국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우선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에게 미식축구와 배구, 농구 등 대학 리그가 발달한 이곳에서 스포츠를 열광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체육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개인적으로 운동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교환학생을 와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때 상상했던 대학의 로망이 현실이 된 것 같았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영어를 배우기에 너무나 최적화된 곳이었다.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기에 학문 외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산혜(콘텐츠융합디자인 14) | 폴란드 School of Form

수업 분위기가 매우 자유로웠다.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었다. 교육과정도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느낌의 디자인이 많아 흥미로웠다.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느낌을 받았다. 돌아보면 수업에서 배운 것도 많고 한 학기 동안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과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취업 걱정, 학업 걱정 등 모두 떨쳐버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특별히 이케아에서 인턴을 하고 왔는데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폴란드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한 학기였다.

배호영(국제어문학부 12) | 홍콩 링난대

아시아와 서양의 문화가 독특하게 섞여 있는 홍콩의 특성은 학교에도 잘 드러났다. 우리나라 특유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수업들이 많았다. 또한, 발표 수업이 많았는데 스크립트를 준비할 수 없어 지난 주에 배웠던 수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수업 혹은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교수님들께서도 중간중간 피드백을 주시며 자연스레 토론하는 분위기의 수업이 진행됐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대학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서 흥미로웠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홍콩에 한 학기 정도 짧게 살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다.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삶으로 배우며 살아내는 장기려 RC(Residential College)



장기려칼리지
JANG GI-RYEO COLLEGE



장기려 박사

1911. 8. 14 - 1995. 12. 25

장기려 박사는 무료 진료소인 부산복음병원 원장을 지내고, 20년간 후학들을 가르치며 의료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협동조합인 청십자 의료재단을 설립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무소유의 삶을 보여준 성산(聖山) 장기려 박사. 그는 생전 '살아있는 성자' 혹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다.

"나는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들을 위하여 의사 일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은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성자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 한동대학교 은혜관에 위치한 장기려 RC(Residential College)는 부와 명예,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일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장기려 박사의 삶을 본받고 기념하고자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됐다. 장기려 RC에 속한 학생들은 '섬김'과 '나눔'이라는 핵심 가치를 삶으로 배우고자 한다.

장기려 RC 세번째 헤드마스터인 이진 교수는 "처음 생각한 장기려RC의 개념은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지성과 생활관에서 익히는 인성, 그리고 예배드릴 때의 영성이 합쳐진 통합된 장소의 RC"라고 전했다.

1년 동안 장기려 RC에서는 섬김과 나눔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시나브로는 장기려 RC의 대표적인 행사로 음악을 통해 장기려 RC가 조금씩 하나 되어 가고자 진행되는 라이브 카페이다.





장기려 RC소속 학생뿐 아니라 모든 RC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끼를 보여주고 싶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7학년도 1학기 시나브로는 5월 27일에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정주원 (기계제어 13) 장기려 RC 대표는 “오랜만에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즐기며 하나되는 모습을 보면서 벅찬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샘물 호스피스’는 말기질환으로 고통받고, 개인적,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봐 주는 병동 체험이다. 봉사활동을 가는 학생들은 임종과 장례를 돕고, 남은 가족을 위로하며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섬긴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지난 겨울 호스피스 활동에 참가한 황진현 학생(상담심리사회복지 11)은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함을 누리는 환자들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며, 환자들에게 남은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진행하던 샘물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여름과 겨울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려 RC 헤드마스터 이건 교수는 “RC(Residential College)를 통해 학생들과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예전에는 주로 수업시간에만 만났지만, 이제는 함께 기도제목도 나누며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듣고 알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했다. 한편 장기려 RC대표 정주원 학생은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따라 장기려 RC의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장기려 RC를 만들어 이 향기가 한동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삶으로 배우고, 스스로 살아내는 장기려 RC 모든 구성원들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맺길 기대한다. (H)





문화생활도 배워서 남 주자! 한동만의 문화 배움의 장, 아트스쿨



아트스쿨은 한동대학교의 지리적 특성과 학업 부담으로 쉽게 노래, 춤, 악기 등의 문화생활을 배우거나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총학생회에서 실시하는 문화강좌사업이다.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 또는 재능이 있는 한동대 재학생들이 아트스쿨 강사로 지원하고, 문화 활동을 배우고 싶은 재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 학생들은 보통 문화강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강좌를 들을 수 있다.

아트스쿨은 기존 언론정보문화학부 소속학회 'Thespian' 주관으로 열렸다가, 2011년 봄학기부터 제16대 총학생회 '엡드림' 문화홍보국으로 이관해 지금까지 총학생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수업당 5-10명 정도의 소그룹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보통 수업은 주 1회 1시간씩 8-9회로 이뤄진다. 각 수업은 해당 강사가 직접 계획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2011년도 봄학기 첫 아트스쿨 수업은 4개분반 39명에서 시작했으나, 2017년도 봄학기에는 무려 14개분반 205명의 학생이 아트스쿨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아트스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강좌도 매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2015년 2학기 제20대 총학생회 '더하기'에서 주관한 아트스쿨 만족도 평가에서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약 90%로 수강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아트스쿨 수업에 만족했다.

한동에서 말하는 '배워서 남 주자'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아트스쿨 강사들과 꾸준히 문화생활을 즐기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학우들이 있기에 아트스쿨 문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한동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가르쳐 주고 배우며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HU)



유재형 강사(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11) 쉐워댄스 / 포토샵 / 일러스트레이터

제가 가진 재능을 여러 사람과 맘껏 나누고 싶어 아트스쿨 강사로 지원하게 됐어요. 이번 학기는 쉐워댄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3개 수업을 맡았어요. 우선 쉐워댄스는 '춤'을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보통 '춤하면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춤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드리고 나아가 춤을 추는 즐거움까지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션은 전공이나 교양을 듣기엔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핵심을 모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년째 아트스쿨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전 수강생들이 다시 제 수업을 찾아 주셨던 때예요. 그 때 강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고 그 보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이어올 수 있게 해준 게리라 생각해요. 또 아트스쿨을 하면서 크게 배우는 점은 수강생들의

진지함과 열정이예요. 저는 현재 가르치는 콘텐츠를 오래 해오다 보니 제 삶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부분이 되었는데, 새롭게 콘텐츠를 접하는 수강생들의 기대나 설렘 혹은 수업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 등이 저에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곤 했어요.

문화·예술적 접근성이 아쉬운 포항과 한동대라는 환경에서 강사는 자신이 가진 예술적 재능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수강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트스쿨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유예지 강사(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15) 피아노 반주법

이번 학기 처음 '피아노 반주법'이라는 강좌로, 코드를 통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해왔지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는데, 한동대에서 동아리를 통해 반주법을 제대로 배웠어요. 저를 가르쳐줬던 선배가 그 반주법을 동아리원 뿐만 아니라 아트스쿨을 통해 다른 학우들에게도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재능을 나눠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강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다 보니, 자료도 더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면서 과정에서 얻는 게 많아요.



김지훈 수강생(생명과학부 13) 응원스쿨

응원스쿨 강좌는 14년도에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때 액션 치어리딩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군 복학 후에 다시 수강하게 됐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느라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만 했던 기억이 제일 크긴 하지만, 뮤직비디오와 같은 최종 콘텐츠를 만들고 나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번 학기는 강사님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드론을 구입하고, 영상에 나오는 일반 학우들을 더 열정적으로 모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면에서 충실하게 임하는 열정에 너무 감사했어요. 일반 학우들과 수강생들은 힘들어 지친 모습이 보이는데 반해 강

그리고 수강생분들 중에 저에게 직접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친구들을 통해 칭찬을 듣게 된 적도 있었어요. 많이 부족한데 항상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트스쿨은 비록 전공생은 아닐지라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바쁜 한동생활에 또 다른 모임을 추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계발을 하는 것은 정말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참여하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님은 끝까지 웃음 잃지 않으시면서 카메라 앞에 열정적으로 서는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어요.

아트스쿨은 수강생에게는 어떤 문화강좌를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는데 선풍 욕구가 안 날 때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상당히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또 강사님도 강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아트스쿨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너를 믿는다!

최효민 (글로벌리더십 17)



한동을 꿈꾸며 보았던 모집요강의 벚꽃들을 직접 보게 됐을 때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 내 삶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동은 내게 꿈도 꾸지 못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효민아 너 학교는 어떻게 되었니?” 하고 물어보면 나는 “한동대학교 가게 됐어요.”하고 말한다. 사람들은 놀란다. 그렇게 놀라는 것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한동까지 오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행청소년이었다. 소년원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걱정이 앞선 규제는 오히려 그 생활을 동경하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나는 집이 아닌 밖으로 자꾸만 나가게 되었다.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엄마는 나 때문에 아프셨다.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앓게 되면서 내가 집에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수면제 없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아버지는 대화로 해결하려 하셨지만 결국 조치를 취하셨고 매를 맞은 후 나는 매가 무서워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빠는 내게 충남 서천에 위치한 공동체비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제안하셨다. 대안학교라는 사실에 부정적 감정을 가진 나는 거절했지만 아빠는 내게 눈물로 호소했다. 엄마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너를 깨우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때 엄마가 나 때문에 아프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아파 학교를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선발캠프에 참여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생활기록부에 흠이 많은 나는 배로 성실하게 생활해야만 했다. 그렇게 어렵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나 또한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며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숙사 생활과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꼈고, 하루를 마치고 힘들 때면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친구의 말도 부모님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우연히 기도실을 찾았고 자리에 앉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힘들 때면 매일같이 기도실을 찾아 울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잠잠하게 다가오셨다. 기도실을 다녀온 후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할 때면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내 마음을 만지셨다.

나는 삶에서 조용히 친구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성격과 성정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모두 변화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고3을 맞이하였고 학기 초 한동대학교 입시설명회를 듣게 되었다. 처음으로 한동대학교를 자세히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동대학교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 가슴은 영상을 보며 계속해서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대학’ 그 한 마디가 내 가슴을 뛰게 했고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은 계속 나를 생각하게 했다. 입시설명회를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한동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고3 1년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목적을 저기서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적정 대학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통해 얻은 뜨거운 마음으로 한동에 지원했다. 지원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생활 전체를 후회할 것 같았다.

한동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은 다른 대학들과는 달랐다. 내가 왜 한동에 가야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내 비전을 찾았다. 내가 겪었던 아픈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동에 진학해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은 것이다. 그렇게 나는 기도와 기대로 기다렸다. 1차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 내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성적으로 도저히 합격할 수 없음을 내가 제일 잘 알았기 때문이다. 면접을 보고 나는 매일 기도했다. “하나님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제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세요.”

결국 하나님은 내게 한동을 허락하셨고 내게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33:3)

꿈꾸던 한동에서 꿈꾸는 세대로 12주차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다. 나와 가정이 겪었던 아픔도 고등학교를 통해 훈련시키심도 다 한동을 허락하시기 위해 나를 단련시키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가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응답에 반응하라고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나는 첫 마음을 잊은 채 12주를 살아왔다. 처음에는 즐겁고 감사가 넘쳤지만 마음만 앞선 채 준비되지 못한 나는 과제와 시험 그리고 모임에 지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흘러가는 날들을 보냈고 마음은 하나님을 모은 편안함을 생각하는 이중적인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방돌이 형과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며 내가 이곳에 온 이유 그 목적성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셨다. 또한 다시 일어서는 나를 새삼 새내기들은 사랑으로 격려해주었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힘을 얻었다.

나는 다시 한 번 내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더 커다란 것이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았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내가 이곳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은 내가 걸어온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인이심을 선포한다. 이곳에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학문적 탁월성을 겸비해 세상에서 아픔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도우라는 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효민아 네가 나를 믿는 것처럼 나도 너를 믿는다!” 하신 주님 앞에 그분을 닮기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앞으로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은밀한 일들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H)



우리는 한동인 입니다

한동은 'Global University'라는 면모에 걸맞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그리고 포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한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알아가며 한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카를라와 중국에서 온 신란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한동대 학생으로서의 그들의 하심탄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Karla Alvarado 카를라 알바라도 (언론정보문화학부 15)

한동대에 오게 된 계기

2010년 제가 고등학생일 때,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미션트립으로 멕시코에 제가 다니던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던 기숙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무르는 동안, 저는 그들의 열정적인 신앙심과 섬김의 자세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 친구들이 한동대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대를 꿈꾸며 정보를 찾아보고 한국인 크리스천에게 한동대가 어떤 곳인지 물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동대를 추천했습니다. 단지 학문적인 탁월함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같은 다른 측면에서도요. 그때부터 한동대 진학을 준비했고, 하나님 덕분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에서의 생활, 그리고 소중한 추억

저는 한동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분석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동대는 한국 문화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대 사람들은 대다수 아주 친절하고 좋아요. 마치 그 친절함과 섬김의 자세는 바이러스 같아요. 누구나 여기에 있으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런 분위기가 한동 모든 곳에 전파 되어있죠. 한동에서의 공동체 생활도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특히 국제 학생 사이에서는 국가별, 언어별로 정말 다양한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생활하는 것은 한동대가 가진 큰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해외 학생을 위해 새내기 섬김이를 했습니다.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새내기들이 100일 기념으로 새섬인 저를 위해 기념행사를 만들어줬어요. 무엇보다도 새내기들이 제게 “사랑한다, 고맙다, 새내기 섬김이로 나를 섬겨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준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날 여태껏 내가 새섬으로 섬겼던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저는 항상 ‘내가 좋은 새내기 섬김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왔는데, 그날에 비로소 ‘새내기들이 나를 좋은 새섬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죠.

문화의 벽을 넘어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한동대에는 네 가지 학생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학생, 재외국민학생, 해외(외국인)학생, 교환 학생이 있어요. 사실 해외 학생들이 한동의 삶에 스며들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한국인 학생과 해외학생 사이에 문화의 벽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단 한국인 학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해외 학생들로 하여금 좀더 많은 한국인 학생들과 접촉하기를 독려해요. 한국인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는 많은 해외 학생들을 보지만 그들은 I-House(국제관)에서 나오질 않아요.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인들은 대체로 외국 문화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부끄러워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걸고, 한국어를 배워서 그 벽을 깰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쨌거나 우리는 한국 안에 있으니까요. 국제 학생들이 한동대 내에서 조금 덜 수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동에서의 삶, 비전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섬기는 리더(Servant Leader)가 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한동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학문적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제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이 학교에서의 목표입니다. 또한 카마이클 칼리지에서 새내기 섬김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학교에 적응 하려는 새내기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전공을 통해 각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돕고 싶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에, 다양한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Guan Xinran 관신란 (국제어문학부 14)

한동대에 오게 된 계기

저는 2014년에 처음으로 한동대에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한동대를 선택하게 된 것은 당시 중국 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한동대에 관한 많은 정보와 추천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어 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리더십이나 여러 다양한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이후 본격적인 한동대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 돌아가 한 학기 동안 한동대 진학을 위해 각종 서류와 자격 조건을 준비한 뒤, 2015년에 해외학생 편입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한동대에서의 생활, 그리고 소중한 추억

저는 분명 한동대는 좋은 학교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많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정규학생으로 한동대에 돌아온 뒤에는 해외 학생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교환학생 시절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를 쓰며 생활했는데, 정규학생으로 편입하고 나서는 카마이클 칼리지 소속으로 국제관에 사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해외 학생들과 한국 학생과의 벽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해외 학생이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 학생 그룹에도 속하기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한동대를 좋아하며 여기서의 삶을 즐기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좀더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인 동시에 글로벌한 대학입니다.

저도 함께 인터뷰 하고 있는 카를라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에요. 소통의 문제는 한 쪽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학생과 해외학생 서로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한국학생이고 해외학생인 것과, 외모가 다르거나 비슷한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한동대 학생이자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인 동시에, 글로벌 대학입니다. 결코 카마이클 칼리지만이 글로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한동대 학생들 사이에 간극을 줄여 나가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에서의 삶, 비전

한동대에서 졸업하기 전까지 제가 어떤 방면으로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동에서는 좋은 학생으로서,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먼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가족, 룸메이트, 프로젝트 구성원과 같은 내 주변부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한동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섬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H)

그들을 위한 고민,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영프로페셔널 박설리 동문



Q.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한 11학년 박설리입니다. 지금은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14기 영프로페셔널로 인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말부터 일을 시작했고,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 이렇게 오래 있었던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Q. 현재 KOICA 청년 인턴으로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KOICA가 하는 일은 프로젝트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국내초청연수, 민관협력, 국제기구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저는 프로젝트사업, 국내초청연수, 행정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공적개발원조(ODA)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저는 한동대에서 국제지역학과 영어를 공부했어요. 국제지역학 수업의 일환으로 KOICA 본부와 학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의 국제기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서 하는 국제개발을 모두 경험하고 싶어서 KOICA 인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관심있던 분야이고, KOICA라는 구체적인 기관을 염두해 두고 있어서 14기 영프로페셔널 모집 공고가 나자마자 지원했어요. 아직도 제가 KOICA 인턴이라는 것이 가끔은 믿기지 않아요.

Q. 원래부터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었나요?

영프로페셔널 지원 당시, 30개국이 넘는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 캄보디아를 선택하게 된 건, 제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학년 때, 기숙사 침대에 누워 '누가 꽃들의 입을 틀어막는가(데이비드 배스톤 저)'라는 책을 읽으면서 울었던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국가별로 두드러지는 인신매매 형태 및 현황, 현대판 노예 등에 대해 말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행동하길 외치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텍스트를 통해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잖아요. 이 책이 제게 인상 깊었던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970년대가 아닌 지금,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의 실상을 보고 제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Q. 인턴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동료 인턴과 함께 시애틀으로 휴가를 갔어요. 프놈펜 밖으로는 처음 나간다는 사실과 화창한 날씨에 두근거렸어요. 폰레삽 호수를 보트투어 하던 날이었는데요. 건기로 인해 낮아진 수위때문에 강 바닥의 쓰레기들이 엔진에 걸려 돌아가지 않을 때 뛰어가서 엔진을 정리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10살이라고 하는데 6살 아이 같았어요. 그 아이가 귀여워 앞에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 분이 제게 하시는 말이 '이 아이처럼 검은 피부를 가지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괜히 절 보며 대답을 기다리는데 제가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들을 과연 나와 같은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머리 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아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나요? 당신은 진심으로 이 아이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전 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캄보디아 사람을 하대하고, '나는 캄보디아에 태어나지 않아서, 너와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지 않아서, \$1을 위해 구걸 안해도 되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위선적이지, 전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었어요.

Q. 인턴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은 없었나요?

현실에 익숙해지면서 치열하게 살기를 포기할 때인것 같아요. 사실 인턴활동으로 힘든 일은 크게 없어요. 업무가 많아서 정신없이 지나갈 때 하루가 뿌듯해요. 그런데 점점 일에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수를 갔는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몇명의 사람이 왔는가, 우리가 확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원조했는가' 등에만 집중하는 저를 발견해요. 멍하게 있다 보니, 국제개발이 숫자로 보일 때 가장 힘든데요.

Q. 공적개발원조에 관심있는 한동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모두가 똑같은 장면을 보고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듯, 여러분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행동해주세요. 주변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로 도와주세요. 관심이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공적개발원조는 단순 개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전문성으로 '모든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는 후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우길 바랍니다. (H)



뜨개질 할머니가 110명의 선교사를 만난 날



한동에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할머니 한 분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뜨개질 할머니, 바로 오순향 후원자이다. 2013년부터 매년 11월말이면, 한동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손수 뜨개질로 모자, 스웨터, 목도리 등을 선물해 주시는 갈대상자 후원자이다.

지난 5월 17일 수요일 저녁, 오순향 후원자는 중간고사 이후 몸도 마음도 지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러브피스트 열 어주었다. 오순향 후원자는 러브피스트에서 한동을 방문한 소감과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젊은 시절, 해외 30여개국에 주로 미용 봉사를 하며 단기선교를 다녔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 드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만나게 되는 외국인 유학생이 110명이라고 들었을 때, 오늘 한국에 온 110명의 선교사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한동에 온 여러분들이 이 곳에서 잘 교육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난 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순향 후원자는 이번 방문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110개의 모자를 뜨개질해서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일일이 물어보시며, 모자도 직접 학생들에게 씌워 주기도 하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유학생과 한동국제학생회(ISU: International Student Union)에서도 후원자에게 감사찬양과 감사편지, 꽃다발, 감사쪽지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뜨개질 할머니가 준 모자를 쓰고, 행복한 단체 사진을 찍으며 이 날 모든 행사를 마쳤다. 맛있는 음식과 끊임없이 웃음소리,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과 포옹, 어느 학생의 감사 쪽지처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따뜻한 시간이었다. (H)



선교사 자녀들의 응원단, 온누리교회 이천만 선교팀과 양재권사회

2017년 6월 2일, 효암체플 별관에 한동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러브피스트가 열렸다. 매년 온누리교회 양재권사회에서 러브피스트와 학생들을 위한 선물로 격려해 주었는데, 올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지원하고자 온누리교회 이천만 선교팀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종철 학사부총장은 “매년 이렇게 한동대를 방문해 주시고, 선교사 자녀들을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천만 선교팀이 함께 오셔서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룰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온누리교회 이천만선교팀 한숙영 권사는 “온누리교회 권사회를 통한 한동대학교 선교사자녀 후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천만선교팀과 연결이 되었으니, 서울에서의 홈스테이 제공 및 수련활동 지원 등 앞으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한동대 선교사 자녀를 돕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한동대 선교사자녀 모임인 MK커뮤니티 대표를 맡고 있는 16학번 곽화평 학생은 “대학 입학 후 모국인 한국에 돌아 왔지만,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자녀의 특성상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학생들과 같이 잘 적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 순간마다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향수병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매 학기마다 정말 부족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여러 선물과 러브피스트, 여행까지 시켜주셨던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사님들의 관심과 챙김을 받으면서 가족에 대한 향기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선교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되돌릴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대신 전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온누리교회 양재권사회와 수년째 이어오는 따뜻한 사랑과 이천만 선교팀의 관심으로 우리 학교 선교사 자녀들이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길 기대한다. (H)





지난 6월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에서 한동대학교 동문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동 대학교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꿈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던 동문들의 그 때의 시간을 추억하며 '어쩌다 동문'이라는 부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유강(국제어문 96) 회장이 3대에 이어 4대 총동문회장으로 중임되었다. 최유강 회장은 "20년 전 꿈꿨던 '등록금 없는 대학'의 비전을 기억한다.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동문들이 힘을 합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0명의 후배들에게 총동문회의 이름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겠다."라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재훈 이사장은 '등록금 없는 대학'이라는 비전에 함께 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동대학교 이사회도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동대학교 김영길 명예총장이 지난 1년 간의 투병을 이겨낸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날을 되돌아 보면, 저를 한동대 총장으로 부르셨던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여기 모인 한동인 한 명 한 명에게도 한동인으로 부르신 이유와 의미가 분명히 있다. 한동에 왔던 처음 그 마음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동문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장순홍 총장은 "동문 여러분이 '나는 한동인'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란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한동인 모두가 끝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해 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 길을 함께 격려하고 축하해 주면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라며 격려를 담은 축사가 이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 박주호 동문(법 04)은 “2년에 한 번씩 모이는 오늘의 시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했으며, 우제우 동문(경영경제 06)은 “오늘 우리 동문들이 단순히 모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등록금 없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갖고 후배들을 돕는 목적으로 모이게 되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 그 일에 동문회비가 쓰여지게 되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동문회비 약정에도 가입을 했다.”며 앞으로 동문회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김대균 동문(언론정보 05)은 “예전 동문회에는 혼자 참가를 했었는데, 오늘은 5살 아들과 참여를 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도 마련 되어서 생각보다 마음 편히 동문회에 올 수 있었다.”라며 동문회 참가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예배, 총회, 교제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특히 초창기 찬양팀을 섬겼던 버니스최 교수님과 여러 동문이 당일 예배팀으로 함께 섬겨주어 재학생 시절 한동에서 드렸던 예배의 감격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장학금 마련을 위한 플로잉 마켓, 기념품 판매와 함께 한동대 후원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동문의 날 행사에서는 동문들의 자녀들을 위한 키즈존을 운영하였고, 40여명이 넘는 동문들의 자녀들이 참여하였다. 앞으로는 동문만의 행사가 아닌 동문들의 가족행사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문들의 모임과 활동들이 더욱 활발하여져서 모교를 향한 사랑과 재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임재환 동문과 아노키 기도앱



Q.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6학번 국제어문학부 졸업생 임재환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 들어갈 때,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에서 교수님들과 학우들과 학부모님들의 권면과 끈질기고 사랑이 넘치는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Q. 선교사로 섬기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졸업 후에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 전문인 선교사로 가서, 5년동안 선교사 자녀를 가르치고, 탈북자와 꽃제비들을 돌보았습니다. 중국 선교사 2년 차에, 저는 중국연변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간암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한국으로 긴급하게 들어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저는 한동대학교 학우들과 학부모님들께 기도요청을 보냈고, 그분들은 저를 위해 전심을 다하여 중보기도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암'이 아니라 '지방간'으로 판명되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5년차를 마치고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공부하고 중국과 북한을 돕는 NGO 단체 Good Friends Canada를 세우고 섬겼으며, 한국에 돌아와서 Olive Ministry를 조직해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세우는 데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Q. 아노키 앱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그리고 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기도자를 찾고 연결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노키 기도앱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아노키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노키는 히브리어로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출3:6)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노키는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노키 앱에서는 기도제목들을 공유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답된 기도제목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모임도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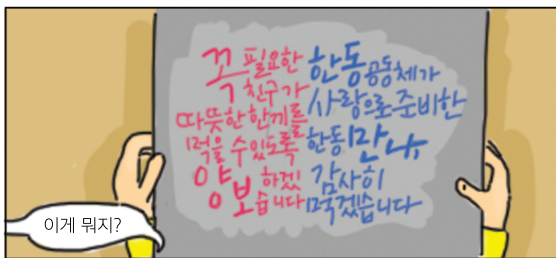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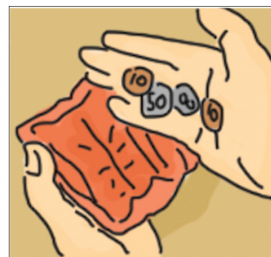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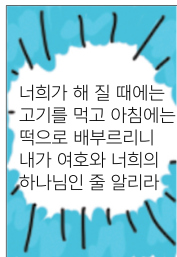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동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우들과 학부모님들의 눈물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SNS ANOKI

지금 바로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아노키를 검색하세요!

정직과 배려의 따뜻한 한 끼, 한동만나



한동툰
HANDONG TOON
-한동만나-
글:그림 강민애(12)

경영경제학부

Seize the Day, God's Way

국제어문학부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

법학부

공법을 물결이! 정의를 하수결이!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주님 사랑! 사람 사랑!

언론정보문화학부

많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

창의융합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이웃을 위한 공간 환경공학

기계제어공학부

생각대로 움직인다, 낭만기어

생명과학부

생명의 지혜! 생명을 살리는 열정!

전신전자공학부

하나님의 마음, 미래기술의 심장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ICT 창업학부

Creation beyond Technology

글로벌리더십학부

예수님을 닮은 글로벌 리더

당신의 **비전** **전공** 슬로건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6
한동의 Slogan Road

제가 학부를 선택하기 전에 정말 좋았던 것은 각 학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에 대한 슬로건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 언론정보문화학부 박소연(09) 동문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7.9.11(월)~9.15(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7.12.30(토)~2018.1.2(화)
입학상담 054-260-1084~6
입학홈페이지 <http://admissions.handong.edu>

수시모집		정시모집
학생부 종합		다군
학생부종합 전형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	일반학생 전형(인문계열)
일반학생 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일반학생 전형(자연계열)
지역인재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정원 외)	
대안학교 전형	기회균형선발 전형(정원 외)	
	실기(실적)	
	해외학생 전형	
	해외선교사자녀 전형	



한동대학교입학홈페이지

갈대상자(일반후원)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매월 1만원 이상, 혹은 일시 후원으로 한동을 더욱 견고히 엮어가는 갈대상자 후원자를 찾습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7000 갈대상자(일반후원)

급변하는 이 시대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적 필요가 절실한 한동을 위해 중보하며 후원하는 교회, 기관, 개인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매년 100만원 이상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한동문(졸업동문 대상)

한동문은 오직 '한동의 졸업 동문'만 참여할 수 있는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으로 매월 1만원 이상 후원 가능합니다.

한동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줄 바로 그 한 사람, 한동의 졸업생, 한 동문을 기다립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한동천사(재학생 대상)

'한동'의 밝은 미래를 '천'원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한동천사는 매월 1천원 이상 후원하는 재학생 갈대상자 캠페인입니다. 한동천사에 참여함으로써 오늘의 한동과 내일의 한동을 이어가는 한동 사랑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여호수아 장학금 (목회자·선교사 자녀 후원)

한동의 목회자·선교사 자녀(재학생의 약20%, 2015년 기준)가 한국 교회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되도록,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처럼 이들을 응원하고 중보할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후원자와 1:1 매칭, 생활장학금 1년 120만원 / 등록장학금 1년 600만원)

한동대학교 여호수아 :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만나(재학생 식비 후원)

한동만나는 한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후원자와 한동 공동체가 함께 채워,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아너코드에 따라 이용하는 사랑의 위로, 따뜻한 한 끼입니다. 1만원을 후원하시면 약 한 동만나 4끼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 첫 열매 (첫 월급)

첫열매는 수확한 첫 소산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월급입니다. 그래서 한동을 졸업한 선배들이 첫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는 후원프로그램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한동의 외국인 유학생들,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건축기금

한동대는 대부분 재학생들이 캠퍼스 내 생활관에서 함께 살고, 함께 배워가며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캠퍼스 내 생활관부터 도서관, 강의실 등 다양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하나은행 518-910023-12905

보아스(고액 일반기부금)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룻.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동을 향해 큰 사랑의 손길을 펼칠 보아스 후원자를 찾습니다.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한구좌 100만원)

하용조 장학금(장학, 연구 및 국제화 활동 후원)

부드럽고 따뜻한 목회자, 예수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한 설교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순종했던 비전 메이커였던故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비전의 사람을 만들어갈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한동대학교-하용조기금 하나은행 132-890008-58904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 갈대상자, 보아스는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으로 사용되며, 그 외 기부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 발전기금과 세금 |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발급

후원관련 문의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 후원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054-260-1063~7
팩스: 054-260-1069
E-mail: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13 라임타워 12층
전화: 02-3443-3232
팩스: 02-3446-3939
E-mail: hguseoul@handong.edu

한동대학교 미주 후원회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HIFI)
3200 Westhurst Lane, Oakton, VA 22124-1748 U.S.A
Tel: 703-627-8050
E-mail: ksc@bskb.com

신규 기부자 명단

2017.1.1~2017.6.30, 508명

가요한	김갑록	김선미	김재곤	노경자	박정웅	성천모	양하영	이강현	이영미	이혜원	정대한	차찬민	허경환
강경원	김건희	김선민	김정권	노유진	박종채	손경희	양희두	이건호	이영주	이홍구	정문석	채경현	허선훈
강명구	김경미	김선영	김정미	노은호	박종철	손병훈	염지영	이광수	이영희	이희경	정미경	채관희	허원강
강민옥	김경숙	김선호	김정우	노주영	박주봉	손성인	오민숙	이광현	이예은	임병훈	정미자	채수현	허윤희
강산길	김계림	김성엽	김정원	도경민	박주은	손연우	오세현	이규희	이용규	임성찬	정상호	채우병	홍강자
강성문	김광남	김성욱	김정희	도명옥	박준민	손지혜	오승지	이길형	이용만	임소현	정서원	최도훈	홍경옥
강성준	김광미	김세은	김종석	라경란	박준오	손화철	오옥현	이나경	이용섭	임영목	정성근	최란	홍광표
강연경	김기수	김세현	김종순	문선빈	박준하	송신애	오원재	이대준	이유나	임윤식	정승혜	최명옥	홍기철
강윤식	김기태	김세희	김중환	문윤희	박준형	송윤희	오윤진	이명숙	이윤희	임인철	정우성	최명철	홍동희
강윤철	김기훈	김소희	김주현	문태엽	박진아	송정미	오철동	이명순	이은희	임재유	정은영	최미숙	홍미정
강창일	김낙현	김수정	김지민	박관상	박찬규	송태근	오희자	이미경	이의형	장병국	정은정	최미영	홍민지
강하영	김대근	김순정	김지성	박광원	박철희	송태성	우성아	이미숙	이인수	장성준	정인용	최미혜	홍성수
강현희	김대범	김승일	김지은	박규영	박춘근	송하나	우영춘	이미향	이인환	장정숙	정지수	최병철	홍찬양
강혜원	김대현	김승자	김진락	박규석	박택순	송호택	우철원	이민용	이재성	장정희	정지현	최병희	홍창의
경연수	김덕현	김시윤	김진명	박기주	박하은	신명섭	원치열	이민하	이재호	장태준	정창일	최봉기	홍혜연
계기원	김도현	김신한	김진수	박기찬	박현영	신미양	위성환	이범식	이정목	장하영	정태상	최성욱	황경태
고광수	김동인	김신향	김진실	박대연	박현준	신순오	유건석	이보영	이주연	장한수	정하은	최수진	황용범
고대석	김명섭	김영만	김진홍	박동락	박희승	신영순	유동재	이상산	이준서	장혜경	조나경	최승기	황원희
고승희	김명진	김영민	김철진	박병삼	배경국	신정모	유병문	이상우	이준희	장혜량	조미연	최영란	황정임
고종규	김미경	김영주	김춘자	박서연	배꽃하얀	신혜미	유승한	이상재	이중호	장훈재	조민주	최영민	황철호
고형화	김미영	김영화	김태호	박석환	배리아	신혜숙	유시영	이석주	이지원	전규성	조영화	최영식	황효찬
공국진	김미정	김예나	김태희	박성희	배성환	신희자	유영길	이성구	이지인	전당희	조유미	최용준	
공신영	김민규	김용섭	김하영	박세은	배은정	심지현	유인경	이성찬	이지형	전명희	조은영	최운석	
공정순	김민기	김용수	김학철	박소형	백광현	안동수	유재황	이소라	이지홍	전병우	조이수	최유정	
곽낙영	김민수	김용욱	김혜정	박순원	백명순	안보성	유진상	이송	이지환	전선영	조재령	최은강	
곽미란	김민이	김우성	김호수	박신혜	백일기	안성균	윤경주	이수남	이진식	전수일	조정민	최의성	
곽미희	김병현	김욱한	김홍인	박영미	변범석	안영명	윤영수	이숙자	이철원	전아현	조종현	최현미	
곽영지	김병호	김운오	김희복	박영인	변지현	안재영	윤예진	이승국	이춘희	전우진	조항목	최현종	
구상미	김보람	김원호	김효림	박옥순	서수향	안재형	윤유희	이승섭	이판기	전은지	조현지	피성훈	
구정선	김상규	김윤지	나경록	박원준	서용석	안정원	윤이중	이승철	이학현	전정철	조홍래	하기용	
권상혁	김상근	김은수	남궁진	박은결	서주혁	안종인	윤종근	이시정	이해석	전지원	지낙철	하명금	
권오수	김상덕	김은숙	남성호	박은혜	서준석	안지산	윤태길	이신영	이혜영	전지현	지용호	하승호	
권오순	김상돈	김은지	남영순	박인혜	서지은	안진원	이강실	이여한	이현재	정다니엘	진윤섭	한성현	
권오승	김선국	김은희	남용욱	박정록	서해경	양점숙	이강인	이연규	이혜규	성국	진주희	한승희	
(사)한국성품협회			(주)제이엘와이			두산건설(주)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			참포도나무병원	
(재)대산농촌재단			(주)진산			두산엔진(주)			산마루교회			평택비전병원	
(재)윤송조창석문화재단			(주)한컴			두산인프라코어(주)			삼천리자전거양덕점			포도밭학원(유경하)	
(주) 토니모리		BS창호산업				두산중공업			서강석내과			포항대광교회	
(주)네오플렉스		Park Jong Soo				두타물 주식회사			온누리 이천 선교본부			포항대흥교회	
(주)두산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미즈앤맘			온누리교회 서빙고 여성사역			해인기업(주)	
(주)라인앤지인		금호석유화학(주)				박영신 치과의원			이디야 커피 한동대점 김순자				
(주)베이다스		금호플리켄(주)				법률사무소 행			인산장학문화재단				
(주)에코너티		금호피앤비화학(주) 서울사무소				부산전포교회			인천성안교회				
(주)오리콤		다비치안경 포항2호점				비제이파워테크(이인경)			재단법인 심팩최진식장학재단				

후원신청서

후원자정보

성명[교회/개인/기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연락처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출석교회
구분	☐ 일반인 ☐ 기업 ☐ 교직원 ☐ 학부모(자녀성명/학번: _____) ☐ 동문(학번: _____) ☐ 교회 ☐ 기타

약정정보

후원금액	☐ 일회 원 ☐ 정기 월 원
후원종류	☐ 7000 갈대상자 ☐ 갈대상자(일반) ☐ 한동문(졸업동문) ☐ 보아스(고액) ☐ 여호수아 생활장학금 ____명 (선교사·목회자 자녀후원, 1명, 1년 120만원, 월10만원) ☐ 여호수아 등록장학금 ____명 (선교사·목회자 자녀후원, 1명, 1년 600만원, 월50만원) ☐ 팀워크(교육선교) ☐ 한동만나 ☐ 건축기금 ☐ 기타지정기부금(_____)
기부금 영수증	☐ 발행 [주민(사업자)등록번호: _____] ☐ 미발행

납부방법

☐ 자동이체 (CMS)	이체일 ☐ 10일 ☐ 23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명 (서명) *후원신청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
☐ 무통장 입금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후원금액, 후원목적 선택정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교회, 학번, 자녀성명,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정보 민감정보 종교, 출석교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부금영수증 발행 목적으로 수집,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정보제공	자동이체출금이체서비스(금융결제원), 기부금 납부 및 기부자예우, 모금통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제160조의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예우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학)한동대학교 이사장
한동대학교 총장 귀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성명 _____ (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_____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_____

한동대학교 7000 갈대상자 **NAVER** 7000 갈대상자

후원금액 1년 100만원

사용목적 한동대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참여방법 신청서 문자발송 010-9260-1063 | 온라인,스마트폰 <http://sarang.handong.edu/7000> | 우편발송

입금계좌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 한동대학교

후원문의 (학) 한동대학교 후원팀 |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054-260-1063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닙니다.



믿음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크리스천 비율이 약 89%로 하루의 처음과 끝이 예배이며,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전공, 학년 구분없이 30-40명이 교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캠퍼스와 생활관에서 전인교육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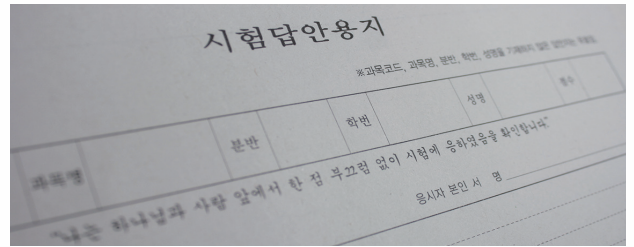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의 훈련소입니다.

재학생의 약20%가 선교사,목회자 자녀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익힌 언어와 다양한 문화 경험, 친화력 등의 강점과 함께 한동에서 훈련받으며 글로벌 리더, 부모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따라 온 학생들은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대학의 학생만족도를 나타내는 한동대의 중도탈락률은 1.3%로 전국 사립대중 가장 낮아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출처: 대학알리미 '2016년 대학 중도탈락 학생 현황')



정직을 배웁니다.

무감독양심시험으로 대표되는 한동명예제도와 끼니를 거르는 학생을 위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식사하는 한동만나는 한동의 정직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성·인성·영성 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한동대학교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필요가 절실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